한마루

2024 • 40호

보호치료시설 효광원

한마루

한마루는 「남보다 훨씬 뛰어난,
걸출하다」는 순 우리말입니다.

2024년 vol.40

발행일 2024년 9월 20일
발행처 보호치료시설 효광원
발행인 김현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1305번길 48

보호치료시설효광원
www.hyokwang.or.kr

전화 042.271.7053 팩스 042.271.5775

한마루에 실린 글이나 자료를 효광원의 동의없이 무단 복사, 전재하는 것을 금합니다.

Contents

마중물
04 교사의 글 사회복지사 이완식

효우리 이야기
06 퇴소자의 글 김○원
08 재원아동의 글 차○민

효광원 프로그램
10 2024년 상반기 기획사업
12 주요사업
13 집단상담

훈훈한 '목록'
14 겨울 힐링 산행 소감문
16 해(海)바라기 캠프 소감문
18 국토횡단 7기 소감문
20 보호자 교육 소감문

시설안내
21 운동장 개방, 전기충전 사용

따뜻한 손길, 아름다운 마음
22 후원금 내역
23 후원금 지정보고 및 자원봉사 안내

표지사진 _ 2024년 해(海)바라기캠프

해(海)바라기캠프는 재원 아동들에게 체계적인 외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유도하고 성취감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와 긍정적인 사회적응 향상을 도모한다.

엔지니어에서 복지사로

writer. 이완식 사회복지사

엔지니어에서 복지사로

사회에 처음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는 23살 전문대 재학 중 소기업에 취업한 엔지니어였습니다. 23살 갓 취업한 이완식에게는 하루하루가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나름 전기·전자 관련 전문대였음에도 현장에 나가니 그동안 공부한 내용은 쓸모가 없었고 할 줄 아는 게 없던 저는 하루하루 욕을 들으며 말 그대로 하루하루 버텨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는 중 같이 입사하였던 학교 동기는 이곳은 아니라며 퇴사하였고 여러 가지 일을 맡던 팀장도 이직하여 막내였던 제가 모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일이 익숙해지고 여유가 생길 때쯤 갑작스럽게 회사의 자금난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이직을 준비하지 못한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을 때 문득 중·고등학생 때 생각만 하던 사회복지를 공부해 보는 것을 도전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자격증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자격증을 준비하며 사회복지 공무원도 같이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자격증은 취득은 하였으나 공무원 공부는 생각보다 만만한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한 문제, 두 문제 차이로 합격 여부가 갈렸으며 몇 문제 차이로 불합격이 되었을 때 큰 좌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좌절을 2~3번 본 후, 과거 같이 일하던 다른 엔지니어분의 제의로 다시 전기회사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랜만에 하는 일로 피곤한 줄 모르고 열심히 하였으나 새벽 2시 퇴근 아침 8시 출근이 반복되자 결국 몸에 무리가 와서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가 되었고 회사 또한 급속도로 사정이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오래 지나지 않아 회사는 폐업을 하였고 저는 다시 한번 이직 준비 없이 백수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2번의 상황을 겪으니 더는 전기 관련 일을 하기 싫어 방황하다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들고 대책 없이 취업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취업시장은 저에게 쉬이 문을 열어주지 않고 번번이 불합격 메시지만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사회복지 기업에 서류가 붙고 면접을 본 후 합격이 될 것 같았고 그때 면접을 보았던 면접관이 저에게 이야기할 것이 있다며 따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면접관은 저에게 사회복지를 제대로 해보고 싶다면 취업보다는 4년제 학교에 다녀보는 것이 어떠냐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유는 인터넷 강의로 딴 사회복지 자격증보다는 직접 학교에서 수업받으며 공부하고 겪어보는 것이 저에게 더욱 큰 도움이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에 그동안 사회복지에 대하여 만만히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자기반성을 한 후 늦은 것 같았으나 사회복지 4년제 대학에 편입하여 제대로 된 사회복지사로 변하기 위한 도전과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도전과 노력이 헛되지 않았는지 다행히 저는 제가 원하던 효광원에 입사하게 되어 근무하며 재밌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효우리들에게 바라는 것

효광원에서 효우리들과 지내며 매우 안타까운 상황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의 이유 대부분은 "지금", "현재" 내가 재밌고 하고 싶은 것만을 생각하고 행동하다가 기간연장이 되거나 보호처분변경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효우리가 지금 자신이 하는 행동이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생각하지 않고 생활합니다. 그리고 교사가 수업 혹은 프로그램 진행 중에 "지금", "현재" 심심해서 장난을 치다가 교사에게 지도받고 참도움을 받으며 뒤늦은 후회를 합니다. 다행히 이러한 후회를 한 많은 효우리는 이후 행동을 바꾸려 노력하지만 몇몇 효우리는 후회하고도 다시 이후 자신에게 올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만 생각하는 행동을 반복하다가 결국 기간 연장 혹은 보호처분변경이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 글을 읽는 효우리가 있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기분만 생각하지 말아 주세요. 물론 지금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기분에 여러분의 행동이 흔들린다면 결국 가까운 미래에 여러분이 후회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음을 생각해주세요."

"여러분 지금의 기분만 생각하지 말아 주세요. 물론 지금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기분에 여러분의 행동이 흔들린다면 결국 가까운 미래에 여러분이 후회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음을 생각해주세요."

많은 것을 얻어가는 효우리

writer. 김○원 퇴소자

안녕 효우리 성준쌤반 이끄미 김○원입니다.
저는 효광원 처분을 받았을 때 판사님이 그저 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을 빽곡하게 준비하여 들고 있는 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할 기회를 주시지 않고 처분을 내리는 강주리 판사님께 '당신이 가서 살아봐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지만 꾹 참고 효광원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신입반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본 방 배정을 받은 저는 이왕 온 거 씩씩하게 살아보자는 생각을 하여 다른 효우리와 싸움을 하고 다음 주에는 간식을 걸고 내기를 하는 등 교사참도움 두 개를 연달아 받았습니다.

2주 만에 교사참도움 두 개를 받고 이렇게 살다가는 보호처분변경이나 기간연장 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하고 생활을 잘해 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생활하다 보니 이끄미에 신입반 멘토까지 해보고 퇴소하게 되네요.
제가 이곳 효광원에서 생활하며 느낀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참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6개월간 지내며 많은 효우리가 싸우는 것을 보았는데 하나같이 모두 후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는 것이 보다 빨리 나가는 방법 중 하나이고 나가는게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손해 보는 싸움을 하지마세요.

두 번째는 무엇이라도 얻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효우리 모두가 죄를 짓고 이곳에 오게 되었지만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무엇을 얻어 갈지는 다 다릅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6개월이란 시간을 남들보다 값진 시간으로 만들고, 더욱 많은 것을 얻어 가려고 노력하세요.
저는 효광원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참여했고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 변할 수 있었습니다. 수녀님, 귀섭쌤,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이 아니셨더라면 검정고시 합격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덕분에 평균 84점이라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부님 저에게 세례를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세례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으며 사회에 나가서도 신앙생활을 하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성준쌤~ 선생님의 아들이 된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항상 잘 챙겨 주시고 상담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내 친구 윤성아 마음 같아서는 자진 연장하여 같이 나가고 싶지만 마음만 받아주라. 사고치지 말고 정상 퇴소 꼭 하고 정신 차린 모습으로 만나자. 이 밖에 나와 친하게 지낸 동생, 친구, 형들 잘난 것 하나 없지만 친하게 지내줘서 고마워.
저는 퇴소 후 6개월간 외롭게 지낼 것이며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남은 시간 동안 공부하며 준비하여 내년에 대학 진학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퇴소 인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집에 가보겠습니다.

6가지 소중한 배움

안녕 효우리 중훈쌤반 차O민입니다.
제가 효광원에서 지내며 배운점과 느낀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곳 효광원을 오면서 6개월이란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떠나 처음 공동체 생활을 하는 만큼 시작은 정말 힘들었지만 적응을 한 후에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고 제 성장단계는 도우미였습니다.
하지만 적응이 됐다고 안심한 나머지 너무 들떠서 한 효우리에게 실수를 하여 첫 교사참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계속 생활을 못하다 이대로는 집에 가기 힘들겠다고 생각이 들어 열심히 잘 생활하다 보니 도우미가 되어 인사를 하게 된거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느끼고 배운 6가지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저의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평소에는 가족들과의 관계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떨어져있다보니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며 많은 효우리들과의 생활은
적응이 안돼 힘들었지만 점차 친해지면서
공동체 생활의 장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writer. 차○민 재원아동

세 번째는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는 무겁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장난이라 생각하고 행동했지만 받아 들이는 사람은 그렇지 않고 다르게 느끼고 힘들어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교리를 배우면서 가톨릭에 관하여 배우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는 새롭게 신자로 태어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어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화를 참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 이유는 화를 내면 상대방과 제 기분 또한 나빠져 서로에게 피해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사소한 행복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했던 것들이 효광원에서는 규칙에 맞게 행동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재용 선생님의 '하루 5분으로 삶을 바꾸다'는 저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효광원에서의 프로그램에 많은 참여를 하였고 항상 재미있었고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삶에서 가족들과의 행복한 시간을 만들도록 노력하며 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효광원 **기획사업**

사업명
효광원 보호자교육

지원기관
효광원 자체

사업기간
2024년 1월-12월

사업목적 가족기능 강화프로그램인 보호자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가정의 역할 회복과 재구조화를 통해 아동의 재비행을 방지하고, 원가정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목적의 사업.

사업대상 보호자특별교육명령 대상자(보호 청소년과 보호자) 또는 자발적 참여자(보호 청소년과 보호자)

사업명
국토횡단 7기
'독도에서 백령도까지'
가온길을 찾아서

지원기관
효광원 자체

사업기간
연중 2회(2박 3일)

사업목적 보호소년들의 건전한 신체 활동과 자존감 향상을 통해 자연과 더불어 호연지기를 배우고 심신의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을 배양,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함.

사업대상 보호치료시설 효광원에 입소중인 보호소년

2024 상반기

사업명
겨울 힐링 산행

자원기관
효광원 자체

사업기간
2024년 1월-2월

사업목적 보호소년들의 긍정적 유대감 향상 및 성취감, 산의 풍경을 즐기는 목적의 스트레스 해소를 목표로 함.

사업대상 보호치료시설 효광원에 입소중인 보호소년

사업명
2024년 해(海)바라기캠프

자원기관
영덕국립청소년해양센터

사업기간
연중 2회

사업목적 재원 아동들에게 체계적인 외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유도하고 성취감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와 긍정적인 사회적응 향상을 도모한다.

사업대상 보호치료시설 효광원에 입소중인 보호소년

주요 사업

서예 휘호대회

서예 활동을 통해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 지적 영적 발달을 촉진시키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휘호 대회에 참가하여 지역사회에 동참하고 정서 순화와 인성교육은 물론 자존감 향상에 큰 효과를 거두고있음.

상시 진행

삼겹살 파티

보호소년과 선생님들이 함께 삼겹살을 구워먹으며 유대감 향상을 형성하도록 도움.

연중 4회

상위 성장단계 외출 프로그램

보호소년이 정해진 비용과 시간 안에서 계획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책임과 약속을 배우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도움.

2024년 1월-12월

생일자 파티

매달 첫째 주 목요일

생일인 보호소년들이 함께 생활하는 아동들에게 축하를 받으며 자기효능감 증진을 촉진 시킴.

2024년 1월-12월 첫째 주 목요일

집단 상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두드림(Do Dream)

꿈:드림, '꿈을 드림'(드리다의 명사형)이라는 중의적인 표현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는 프로그램.

연간 3회 실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주관 'HI프로그램'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찾아 진로고민을 해결하고 본인의 희망과 적성에 맞는 양질의 취업 지원이 되도록 하는 체험형 프로그램.

연간 2회 실시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과 공공의 복지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월 1~2회

도박중독 치료집단

도박 폐해를 최소화하고 학교 밖 고위험 청소년에게 도박 행동 인지, 정서, 욕구 측면에서 어떠한 결과를 유발하는지 활동을 통해 경험하도록 안내하여 퇴소 후 고위험 도박 상황에 올바른 대처를 하는 기본 역량강화 프로그램.

연간 4회 실시

겨울 힐링 산행

2024년 방학프로그램 기간 1월, 2월 프로그램 진행

대전 근교에 있는 보문산, 둔주봉, 현충원 보훈둘레길 등을 보호소년과 선생님들이 등산을 하며 풍경을 즐기고 스트레스 해소에 중점을 두고 긍정적 유대감 향상 및 성취감을 형성하도록 도움.

겨울 힐링 산행 소감문

이번 겨울산행을 참여하며 느낀 점이 있었나요?

겨울산행 프로그램으로 등산 중 너무 힘들었지만 체력을 조금이라도 기를 수 있어 좋았습니다.

김○은

등산을 가서 오랜만에 산공기도 마시고 힘들어도 정상까지 가서 성취감도 느꼈습니다.

이○원

처음으로 한 등산이 저에게는 엄청 좋았습니다. 등산을 하면서 곤기를 기르고 재밌게 놀고 스트레스를 다 날려서 좋았습니다.

양○준

등산을 하며 마음을 단련하고 신부님과 유대감을 쌓았고 맛있는 걸 먹어서 기분도 좋았습니다.

윤○호

해양 캠프

2024년 3월 6일~8일 해(海)바라기 캠프 프로그램 진행

국립청소년해양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외부 프로그램을 통해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유도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와 긍정적인 사회적응 향상을 도모했음

해양 캠프 소감문

2박3일동안 프로그램이 많아서 시간이 빨리 지나갔고 재밌고 도움되는 활동들이 많아서 좋은시간이었음.

정○웅

반복된 일상에 지쳐 있었는데 색다른 경험을 통해 즐거웠음. 선생님들과 친해질 기회가 되어 좋았음.

임○솔

날씨도 좋았고 밥도 맛있었고 시설도 깨끗했음. 해양캠프 직원들도 친절하게 교육해 주셔서 감사했음.

안○언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유익하고 재미있었으며 도움이 되었음. 다른 사람에게도 적극 권유하고싶다.

서○안

바다와 생물에 대해 알게된 것이 많고 처음해보는 활동이 많아 재미있음.

허○민

어색한 효우리들과 같은 조가 되었는데 여러 활동을 같이 하며 친해질수있었음.

손○섭

오랜만에 수학여행 기분으로 재미있는 교육과 활동을 할수 있어서 좋았고 바다가 예뻤음. 여러 프로그램 중 수영체험이 가장 좋았고 음식도 맛있었음.

황○권

답답했던마음을 수영과 바다를 보며 조금이나마 환기 시킬수 있었으며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음.

김○원

국토횡단

2024년 5월 20일~22일
국토횡단 7기 "독도에서 백령도까지 가온길을 찾아서" 프로그램 진행

춘천지방법원에서 남양주 시청 제1청사까지 약 70km 코스를 아동과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극한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여 결여된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의 자세를 익히는 시간이었다.

국토횡단 소감문

Q 이번 국토횡단을 참여하며 느낀 점이 있었나요?

A 국토횡단을 하면서 많이 힘들었지만 모두 완주하고 나니 엄청 뿌듯했고 함이 들어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에 옆에서 같이 걸어주던 동료들 덕분에 오히려 함이 나는 것을 느껴 신기했고 인상 깊었고 재미있었습니다.

이○혁

Q 국토횡단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하나를 정한다면 무엇일까요?

A 계 안 좋은 습관들을 돌에 담아서 던지는게 있었는데 강에 돌을 던질 때 저의 안 좋은 습관들을 버리는 거 같아 좋았습니다.

심○환

Q 국토횡단에 참여한 소감을 멋지게 적어주세요

A 지금까지 나약한 정신력을 가지고 무기력한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이번 국토횡단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단점들을 다 없앨 수는 없겠지만 도전하고 잘 안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 과정이 의미있음을 느꼈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부모님께 편지도 쓰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서○안

보호자 교육 소감문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배웠으며, 아이 또한 부모님의 내면을 알아가는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부모로서 신경을 더 써야겠다.' 라고 느꼈고 아이와 대화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했고 수지 에니어그램 하면서 아들의 생각과 마음을 알게 되어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을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아들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알게 된 것 같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아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의 행동에 대해 생각하고 알아보게 된 시간이 좋았습니다.

마냥 지루할 줄 알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의 감정을 알게 되었고, 소통하는데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진짜 좋은 교육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교육 프로그램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 보는 유익한 시간이었고, 정말 아이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시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와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살겠습니다. 오늘 교육 감사합니다.

여러 교육 프로그램 중에 '수지 에니어그램' 프로그램을 처음 접해보았는데 아이와 나 자신을 되돌아 보고 그동안 몰랐던 내면의 모습을 보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육을 통해 아이에 대해 몰랐던 부분을 알게되었습니다.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교육을 통해 아이를 조금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 아이와 어떻게 대화를 해야하고 같이 나아갈 방법에 대해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아이와 같이 오랜 시간 같이 보내면서 소중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부모 교육을 한다고 하니 조금 부담이 되었고 솔직히 어려운 부분도 있었으나 좋은 시간이 된거 같았습니다. 시간이 모자라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보호자 교육을 통해 아이의 감정 상태도 알게 되고 앞으로 좀 더 좋은 파트너로 소통하며 지내고 싶습니다.

운동장 개방

개방시간 토요일 **15:00-17:00**
공휴일 **09:00-17:00**

준수사항

1. 오토바이, 자전거, 인라인 스케이트 출입금지
2. 애완견 출입금지
3. 화기사용금지
4. 흡연, 음주, 취사, 고성방가 절대금지
5. 시설물 파손시 변상 조치함.

시설 사용시 시설장 사전 승인 후 사용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042-271-7053**

전기충전 사용

개방시간 월요일-토요일 **09:00-19:00**
공휴일 불가

준수사항

1. 자동차 전원 차단
2. 충전시 시설내 배회 금지
3. 화기사용금지
4. 흡연, 음주, 취사, 고성방가 절대금지
5. 시설물 파손시 변상 조치함
6. 시설내 아동과 대화 금지

따듯한 손길, 아름다운 마음

1월-6월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화하고자 노력하는 예쁜 아이들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2024년도 상반기 후원금 내역

가마치통닭, 강재언, 김민석, 김왕수, 김도윤, 김성희, 김현수, 김현주, 김은덕, 김현, 권효섭, (재)대철회관, 바이킹뷔페, 박미라, 박오병, 배정현, 변해영, 삽교성당, 서충삼, 세종성베드로성당, 손병재, 손연경, 송정임, 신혜영, 심재광, 안상길, 오세정, 월평동성당, 윤경희, 이강호, 이룸스틸, 이협수, 이형석, 임정숙, 장윤정, 정규순, 정영순, 조유빈, 조현분, 주혜진, 진해해사성당, 천안구룡동성당, 천주교 대전교구 교정사목부, 코맨아이러브피플, 한국아동복지협회, 홍북성당, 홍준원

2024년도 상반기 후원물품 내역

김태민, 김병희, 김명희, 계룡건설, 대전교구장애인사목부, 대전아동복지협회, 동구청, 문창동성당, 매화떡집, (유)모든솔라, 박진항, 법동성당, 부산 신자, 부산가정법원, 세상을품은아이들, 산내동주민센터, 서울가정법원, 상인축산주식회사, 성심당, 수원가정법원, 삼양원동무화재단, 성우보육원, 의정부지방법원, 오리온재단, 정류장악국, 천안모이세, 최명철, 축구사랑나눔재단, 파랑새 리조트, 투썸남대전IC, (사)한국자원봉사실천협회, 합덕 선교사, 합자회사DC F&B, (유)홍일식품

자원봉사자

음악: 김안진

학습지도: 김성수, 박해숙, 양순일, 엄상용, 이세린, 이진희, 임은하, 최선희

겨자씨 공부방: 김규연, 김다민, 박하민, 이상원, 정수원, 한진규

진로탐색프로그램 봉사자: 권산영, 김재일, 박상희, 박송이, 박지민, 윤태균, 이현희, 이형민

이용 자원봉사자: 강은미, 김건희, 김미숙, 김보경, 김지영, 박검지, 박선아, 박현진, 박혜영, 손서윤, 손선순, 송경숙, 송미나, 연지영, 이경미, 이미경, 이영순, 이영진, 장은미, 정민화

후원금 지정보고

2024년 1월 1일-2024년 6월 30일

수입 총 53,710,669원

구분	내용	금액
후원금 수입	지정 후원금	7,686,000
	비지정 후원금	28,643,471
이월금	전년도 이월금(후원금)	17,380,147
잡수입	기타예금 이자수입	1,051

지출 총 30,897,877원

구분	내용		금액
사무비	운영비	제세공과금	1,915,000
		여비	152,400
		수용수수료	3,935,840
		공공요금	156,330
		차량비	869,307
		기타운영비	450,000
재산 조성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1,141,000
		시설장비 유지비	3,821,450
사업비	운영비	생계비·피복비	724,700
		의료비	476,440
		수용기관경비	334,980
		직업재활비	22,800
		특별급식비	865,400
		연료비	1,000,000
	사업비	사회심리 재활 사업비	14,842,430
		자립지원사업비	103,500
		교육재활 사업비	86,300

후원 및 자원봉사 안내

무통장입금

농협
453046-55-002444
(효광원)

전화문의 042-271-7053

내원접수 본 원에 방문하셔서 후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결연
- 청소년과 후원자가 1:1로 결연을 맺어 청소년이 건강하고 밝은 생활을 영위하고 정서적 지지를 받아 퇴소 후 사회복귀 및 적응이 용이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보호자나 연고자가 없는 청소년에게 재원기간동안 면회 신청, 물품 후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노력봉사: 시설청소, 식사(간식)제공, 식당지원 봉사, 생일자행사지원 등
학습봉사: 교과목 및 특기 적성 교육
(기초학습, 검정고시, 대입수학능력시험 준비)
전문분야 봉사: 축구, 헬스, 농구, 음악, 미술, 미용, 레크리에이션 등
문화체험 봉사: 문화 체험 초청

찾아오시는 길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1305번길 48(낭월동 399번지)

버스이용 4번, 30번, 108번, 501번, 511번, 512번, 513번, 514번, 574번, 520번, 620번, 낭월차고지방향 e편한세상아파트에서 하차

자차이용 남대전 톨게이트 통과 후 5분 이내 도착

택시이용 대전역: 효광원 약 7.3km
대전복합터미널: 효광원 약 9.9km

보호치료시설 효광원